

경남-무인선박… 대구-자율주행부품실증…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 ‘규제없이 마음껏 사업’… 전국 10곳 규제자유특구 선정

중기부, 2차 우선협의 지역 발표  
특구계획 한 달 간 지역주민에 공고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서 최종 결정

지역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2차 우선협의 지역이 발표됐다. 우선협의 지역으로는 경남, 전북, 제주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에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오는 11월 초에 열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지역을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중기부 김학도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령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됐거나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지만, 특수 신청 전까지 계획이 보완·구체화 되면 협의 등의 심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 10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우선협의

대상에 오른 울산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선박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공급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을 구축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경남에서는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을 실증한다. 경남은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로 우선 협의 대상에 올랐다. 전북에서는 LNG 상용차 주행과 LNG 충전사업 실증 등으로 친환경·미래형으로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어낸다.

광주는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을 통해 무인 저속 특장차의 실증을 진행한다. 광주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험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 올렸다. 전남은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해상풍력 발전 실증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북은 바이오제약 분야 실증 계획을 냈다. 충북에서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실증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 산업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을 계획 중이다. 대구는 차선 유지 주행 장치, 스마트 정속주행장치, 비상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차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케어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상용화하고,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를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바이오메디컬로

우선협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은 임상 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 시장 진출 등 바이오메디컬 실증으로 관련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추석 전까지 신기술 개발 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 맹점을 조정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한다.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에 165억 지원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충남 공주 등 전국 9곳에 설치  
제품개발·판로 확대 등 도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에게 특수·첨단설비를 제공하는 ‘복합지원센터’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는 ‘공동기반시설’을 전국 9곳에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 지원시설은 소공인 집적지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6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복합지원센터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충남 공주시 유구읍 두군데이며, 공동기반시설은 ▲광주 동구 서남동 ▲경남 김해시 진례면 ▲경기 화성시 향남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구 중구 성내동 ▲전북 순창 순창읍 일곱 군데에 설치된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선정된 서울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 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설비가 설치된다. 소공인들은 복합지원센터에서 3D 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등 제품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과 협업공간에서는 판로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지원받는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와 공주 유구읍은 봉제업종 등 의류 제조와 커튼·이불·벽지 등 생활용 섬유 소재의 대표적인 집적지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50억 원 규모의 국비와 188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합해 238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 중랑구에는 면목패션봉제 집적지가 있다. 이곳은 동대문과 인접해 저렴한 임대료와 원부자재 업체가 밀집해 있고, 봉제관련 소공인 326개사가 모여 있다. 중랑구는 복합지원센터에 소공

인 입주 공간·공동장비실·공동판매장·편의시설 등을 구비해 기획-디자인·생산·유통·마케팅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통한 생산효율 극대화를 이끈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는 섬유제조집적지가 있다. 이곳은 1940년대부터 이어온 자카드 섬유 특화 집적지역으로 인근에 섬유제조 소공인 98개사가 있다. 공주시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복합지원센터에 공동개발실·스마트 가공시설·온라인 쇼룸·공동판매장 등을 구축한다.

공동기반시설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축

과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흥보와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공단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장 내 비상 대피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도 나눠줬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추석 제수용품을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도 마련됐다.

한편, 소진공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일 임직원 20여 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밤 수확을 도왔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권평오 코트라 사장, 변창흠 LH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이 4일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미얀마 진출 기업 지원 및 한-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ONE TEAM KOREA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보, 미얀마 진출 기업에 375억 보증

LH 등 8개 기관과 MOU  
정부 신남방정책과 연계

기술보증기금은 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과 ‘미얀마 진출 기업 지원 및 한-미얀마 경제 협력을 위한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미얀마 진출 기업에 해외진출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한국 기업의 미얀마 시장 진출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보는 협약을 통해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인프라 구축해 한-미얀마 상생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기업은행 및 KE

B하나은행과 해외진출 협약을 체결하고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올해는 총 375억 원의 해외진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보증’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해외진출보증은 해외 자회사 지분 등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에 장기 대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인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자회사 사업화 자금을 보증신용장을 통해 지급 보증하는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이뤄져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 계약을 계기로 미얀마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진출보증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 소진공, 추석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팔걷어

온누리상품권 독려, 장보기 행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소진공 허영희 부이사장

과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흥보와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공단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장 내 비상 대피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도 나눠줬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추석 제수용품을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도 마련됐다.

한편, 소진공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일 임직원 20여 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밤 수확을 도왔다.